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4(土) 구름 조금 5/12°C 15(日) 맑음 1/10°C

News

- 광주시 셧째아이 축하금 ②
- 과학 놀이에 빠진 아이들 ③
- 위성미 이번엔 일내나 ⑭

Books

- 그림속에 숨겨진 이야기 ⑧

Entertainment

- 이색소재 영화 잇단 개봉 ⑩

Wellbeing

- 화순 작설차 맥 있다 ④
- 한약재 건강 목욕법 ⑤

Advertisement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목포 행남자기의 아름다운 노사동행

길거리 내몰릴 직원들 식품회사 만들어 구제

“기업들이 경영난 때문에 직원들을 길바닥으로 내보는 세태에서 회사 측의 배려로 새일터를 얻고 가족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 꿈만 같습니다.”

12일 목포시 상동에 있는 행남식품 맛김공장, 하안 위생복을 갖춰 입은 60여명 직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풀무원에 납품할 맛김포장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들 직원은 5년 전까지만 해도 목포 행남자기 본사이나 4공장에서 일해왔던 직원들이다. 그러나 행남자기 본 공장을 제외하고 산정·석현·5공장은 인도네시아로 진출시킨 뒤 4공장의 폐쇄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150여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공장 폐쇄 60명 갈곳 잃어

이를 애太子여 여긴 김용주(67) 행남자기 회장은 직원들에게 경기도 여주공장으로 옮길 의향을 물었다. 희망자는 40여 명 뿐, 나머지는 생활근거지가 목포에서 떠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50여명을 인근의 다른 공장으로 알선했다. 문제는 남은 60여명이었다.

김 회장은 고민 끝에 절친한 남승우(57) 풀무원 총괄대표를 만나 이같은 실정을 토로했다. 김 회장의 고충을 들은 남 대표는 처음에는 김포자 생산사업을

권유했으나, 일자리 창출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맛김공장을 제안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모두 풀무원에 납품하기로 조건이 달렸음을 물었다.

이후 김 회장은 2003년 7월 목포시 산정농공단지에 15억원을 투자해 행남식품을 준공했고, 60명의 근로자들을 모두 고용했다.

해법 찾다 김 공장 세워

김 회장은 “영리민을 추구했다면 처음 해보는 식품사업보다 다른 분야에 손을 댄을 것”이라며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 때문이 어떻게든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1983년 행남사에 들어와 현재 식품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양정희(56)씨는 “아들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킨 것은 회사의 배려가 있어 가능했다”면서 “생계전인 회사가 번창할 수 있도록 주인 정신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렬 공장장은 “크고 작은 맛김식품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해 어렵지만 우리는 생산성이 높아 매년 60여억원의 매출에 2억~3억원대의 이익을 내고 있다”면서 “이는 노사의 ‘아름다운 동행’을 주창한 창업주 고 김준형 명예회장의 유지와 김용주 혁 회장의 경영원칙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목포시 연산동 행남식품 직원들이 활기찬 웃음을 짓고 있다. 행남식품은 경제위기를 뚫고 연간 2억~3억원대의 이익을 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꿀비 단비 더 내려라 13일 담양군 봉산면 삼지리에서 한 농민이 모처럼 내린 단비에 활짝 웃는 모습으로 마늘밭 물꼬를 내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에는 최대 57mm의 비가 내렸다.〈관련 기사 3면〉 /위직령기자 jwi@kwangju.co.kr

실업급여 11개월까지 받는다

연장기간 60일→90일 추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최장 11개월로 늘어나고 취약계층 신규채용에 대한 국가지원도 커질 전망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60일 이하로 규정된 개별연장급여를 9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90~240일)이 끝나가지만 취업할 가능성이 희박한 실직자에게 60일까지 수급기간을 늘려주

는 제도다. 따라서 노동부 안이 확정되면 실업급여의 전체 수급기간은 최장 330일(11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동기보다 10만명 넘게 줄고 실업자는 80만명 가까이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이번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 앞서 노동부는 개별연장급여 지급의 요건이 되는 평균임금과 부부합산 재산세를 대폭 완화해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노동부는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때 대비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을 60일 연장하는 특별연장급여 고시와 고용개발 촉진지구 지정 등 비상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 장관은 “고용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은 고용상황이 비상계획을 가동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현재 틀에서 할 수 있는 개별연장급여 수급기간 연장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北, 서해 NLL 해안포 훈련 늘려

북한이 해주와 응진반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해안포의 훈련 횟수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군당국도 만연의 사태에 대비해 서해 도서에 전력을 증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13일 “최근 북측 해안가에 염폐된 해안포의 일부가 진지 밖으로 노출된 모습이 자주 식별되고 있다”면서 “이는 평시 교육훈련 차원의 전투준비태세 유지 차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안포를 진지 밖으로 끌어낸 것은 도발을 위한 준비차원이 아니라 전투준비 태세 유지를 위한 훈련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작년 상반기부터 NLL(북방한계선) 인근 도서에 해안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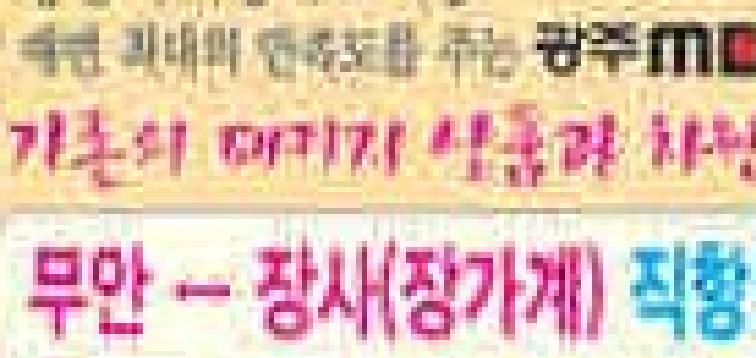
30% 가량 늘렸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전년에 대비해 해안포 전력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당국은 서·동해 NLL 해상에서 북한의 해안포 기습 공격 가능성을 예상하고 유형별 우발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이런 대비책의 하나로 백령도와 연평도에 K-9 자주포와 지대공미사일 등을 보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무안 – 장새(장가계) 무안 – 상해(방곡) 무안 공항 직항!!!

무안 – 장새(장가계) 직항!



무안 – 상해(방곡) 직항!



中國南方航空 光州MBC문화원장 광주/전남 콤 유명여행사 ☎ 전화 062-226-6070